



특별기고  
윤소암의  
미얀마 라오스 문화기행 ②

# 미얀마 최초의 왕국, 천년 넘는 불교유적지

만달레이는 두 번째 도시답게 매우 넓다. 주변의 풍유와 때로 밍근 사가임을 다 보려면 며칠 더 있어야 하나 다음을 기억했다. 참고로 미얀마는 남한의 7배에 육박하는 67만 평방킬로미터의 방대한 국가로 인구 5100만이고 70%의 미얀마족 외에 160개의 소수민족과 107개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다. 단일민족인 한국인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숲과 강의 친화경적인 만달레이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양곤 같은 대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영국식민지 시절의 협궤열차를 15시간에 걸쳐 타본 터라 가이드북의 요주의에도 불구하고 대형버스에 몸을 실었다. 바간까지 293km의 거리를 가져다버린 기차로 1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해서 모험심으로 버스를 탔으나 불과 6시간만에 큰 고생 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 미얀마 최초의 왕국이며 천년 넘는 불교유적지가 산재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간은 가장 보고 싶었던 불교도시로 약간 흥분되고 긴장된 순간이었다.

### # 바간의 역사와 문화

빈틈없이 짜여진 승객의 절반은 미얀마인이고 반은 나와 같은 웨스턴 배낭여행객 등으로 터미널에 도착하기 무섭게 짐을 내려 짐사춤으로 큰 배낭을 메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기는 천년 유적지답게 주로 교통수단이 마차다. 마부들이 서로 경쟁하듯 호객한다. 나이 지긋한 아저씨의 마차에 올라 여러 군데의 호텔을 전전하다가 하루 5달라짜리의 조용한 정원이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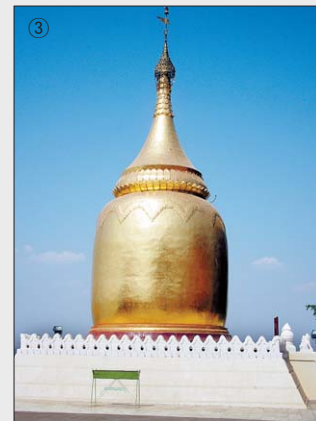
주인은 몇해 전 한국관광을 갔다 와 지명을 즐즐 외우는 60대중반의 노신사, 우리가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지만 숲이 우거져있는 '고색창연한 역사도시'에 왜 군사정권 국가? 라는 긴장이 풀리고 행복감이 느껴졌다. 때문지 않는 순박한 인심, 아름다운 자연환경,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국가인 미얀마는 기원전 3000년에 이미 강 주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다.

바간은 기원 후 1세기에 타무다리아왕이 19개 부족을 통합하면서 바간왕조가 시작되고 부족국가로 이어오다가 1044년에 즉위한 아나우라타(Anawrahta, 1044-1077)왕이 서남부 지역을 평정하고 통일왕조를 세웠다. 이 시기에 바간의 남쪽 지방 따통(Thaton)에서 온 승려 신아라한(Shin arahan)에 의해 불교가 전해졌으나 이웃 왕국 따통에 불교경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아나우라타왕이 거절당하자 따통을 정복해 마누하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해 데려온 많은 기술자에 의해 불교문화의 찬란한 바간왕조가 꽃피게 됐다.

경우는 다르나 일본의 자랑거리인 교토와 나라 규슈 지역의 고대 불교문화가 가야와 백제문명으로 이뤄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수많은 도공들의 도자기는 일본이 선진기술국가로 터를



① 웨산도사원 중심의 대평원 사원 탐.  
② 우팔라테인의 천불벽화.  
③ 부파야 황금종 사리탑.



## 기원후 1세기에 부족 통합하면서 따똥서 온 승려에 의해 불교 전해져 13세기에 건립된 벽돌 사원은 석굴암 연상시켜...쇠창살 속 벽화 '찬연'

뒀는 계기가 됐으며 산업과 문화에서 한국을 앞서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조선인의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은 수백년 후 반도체 등 전자기술의 세계최고국가 일본의 원동력을 많은 한국인들은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가끔 우리와 일본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 # 대평원에 핀 불교예술의 만다라

오후 늦게 3인용 자전거에 동승하다가 문득 한글 간판 '난향'이 눈에 띄었다. 주인은 대구사람으로 흑단 열주를 생산해서 한국에 보낸다고 했다. 한국인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이곳에서 그는 매우 고생하는 것 같으나 또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양관에서 수년 있다가 천혜의 풍광을 가지고 있는 이곳으로 옮긴지 1년이란다.

미얀마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돼 점심이나 호텔에 반드시 발돋움기를 쓰는

데 소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밤에는 짙은 마부를 소개받아 이틀간의 일정을 상실했다. 광활한 지역이지만 길이 좁아 자동차는 맞지 않고 자전거나 마차가 제격이다. 바간은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유네스코 세계 3대 불교유적지로 지정된 올드바간, 관광객들을 위한 남우지역, 원주민이 주로 살고 있는 뉴바간지역이다. 다음날 마차를 타고 처음 찾은 곳은 구비오치 수레이투 우팔라테인 사원이다. 모두 13세기에 건립된 벽돌 사원으로 전방후원(前方後圓)의 전형적인 석굴법당이다. 어쩌면 경주 석굴암과 똑같은지 거듭 감탄사가 나온다.

특히 우팔라테인(Upari Thein)의 벽화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다. 식민지 시절 영국 등 서구인들이 도굴을 해서 벽화를 떼어간 탓에 한쪽 벽은 텅 비어 있다. 유네스코가 몇 년 전부터 도굴 방지로 쇠창살을 해놓았다.

키밍가 파고다에 오르면 대평원이 한눈에 보이고

파고다사원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바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예술적인 사원은 아난다(Ananda payal)사원이다. 1091년 찬사파왕이 건립한 절로서 인도 벵갈지역 사원 양식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입구가 나있고 법당의 동서회랑이 182m 남북회랑이 180m가 되는 거대한 사원이다. 부처님의 전생담인 637개의 벽화, 자타카를 그려놓았다. 남쪽 정면의 목조가설불은 9.5m의 입상이고 북쪽에 구류순불이, 동쪽에는 구나함모니불이 모셔져 있다. 이 가운데 북쪽의 부처님만 1000년전 원형이고 나머지 동서남쪽의 입상은 최근에 재조성되었다 하나 차이를 모를 만큼 정교하다.

아난다 사원은 인도 그리스 풍의 사원건축으로 마치 거대한 가톨릭 성당에 들어온 느낌이다. 관자 형태로 십자 회랑이 있는 11세기 절이고 마하보디사원 역시 인도 그리스 건축모티브로 12세기 짜야 데인카 왕이 건립한 우아한 자태의 절이다.

12시가 넘어 점심을 발판에 천막을 친 식당에서 먹었다. 주로 미얀마인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외국 관광객들의 퓨전화된 음식이 아니라 전통 미얀마 정식이 다. 야채, 젓갈, 쌀, 나물, 찌개가 있어 입에 너무 잘 맞았다. 미얀마인은 우리처럼 북방계 몽골리언이어서 공통점이 많다고 할까.

부파야(BUPAYA)는 아야우디 강변에 자리잡은 황금종 모양의 사리탑으로 3세기 작품이다. 30년 전 다시 복원된 아름답고 환상적인 탑과 풍광이 수려하다.

고도우팔리아는 12세기에 건립됐고 파투어담이는 10세기 절이다. 저녁 5시, 오전에 갔던 대평원 사원의 선사인 탑 옥상에 여행자들이 모여들었다. 작품을 찍기 위해 장엄한 나조를 응시하고 있다.

### #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 순례와 칠기공장 탐방

다음날 아침 야채죽을 한 그릇 먹고 나선 곳은 어제와 반대 방향이다. 13세기 이사고나사원을 참배하고 난다민야(Nandamya)사원을 돌아왔다. 옆에는 11세기 암석굴 수행처가 있다.

풍우한서(風雨寒暑)를 피할 수 있는 반지하 석굴은 수백 명이 쭉히 거처할 수 있는데 인도의 아잔타 석굴의 축소판 같다. 페야푸중, 탄부라, 테오비 사원은 13세기에 건립되었다. 옆에는 타워 전망대가 있는데 빈틈없이 들어찬 사원과 탑 사이에 압축을 남기기 위해 군사정권이 시멘트 전망대를 세웠으나 흉물로 보인다. 마누하사원은 바간왕조에 패해 노예로 끌려온 따똥국의 마누하 왕이 1059년에 지었다. 앞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하는 초대형 보시함이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법당 뒤에는 초대형 와불이 모셔져 있다. 마누하왕이 같은 난파야 힌두양식의 사원은 무척 어둡고 브라흐만신이 기둥에 조각되어 있다. 탐야지카, 황금담이 아름다운 꼭대기바야할 사원이다.

담야양지 사원은 이집트 피라미드와 같은 정삼각형의 거대한 규모가 압도적이다. 12세기 나라파왕이 아버지 알라웅시푸왕과 형제, 부인까지 살해하고 죄업을 참회하기 위해 세운 절이다. 조선조의 태종과 인도의 아유왕을 연상시킨다.

웨산도는 일출과 일몰사원으로 알려져 있다. 웨지곤 사원과 함께 1057년 아노우라타왕의 따똥 정복 기념으로 세운 절인데 1075년 대지진때 탑의 상층부가 훼손되었다.

구벽지, 1113년에 찬사파 왕의 아들 라자쿠마르가 세운 절로서 큰 좌불상과 내부에 벽화가 가득하다. 독특한 양식의 슬래마니를 참배하고 공작 농촌빌리지의 베히는 집을 방문했다. 예전 우리네 농촌을 방불케하는 넓은 마당과 초기집 외양간, 직물간, 농기구 창고들이 정겹고 넉넉한 인심을 느끼게 한다.

오후 늦게 방문한 옷칠 공장의 주인은 최고장인인 말론부란도와 닮은 도도한 사람이다. 다른 가계보다 열 배나 비싸 값을 흥정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 뒤 수차례 다른 옷칠가게를 가 보았다. 바간의 최고 명품은 은제품과 옷칠공예, 진주 장식품이 유명하다.

시인, 동아시아불교문화연구소장

## 중국적산법학원 방생법회 초대

### 한중불교교류행사 & 중국불교성지순례 (주)SK투어 ☎1600-4226

**제1일**

18:00 - 인천항/명태항 국제여객터미널 집결후 출국수속  
(합선시 경유시 국제여객터미널까지 45인승 시범버스 무료제공)  
- 점심은 특급호텔 2인1실(2인실)로, 특급카페리 탑승 후 휴식  
19:00 - 여객터미널에서 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합선시)  
- 인천국제공항(2인실)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제2일**

09:00 - 중국적산법학원 도착수속, 법학원법학원  
11:00 - 법학원법학원(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13:00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15:00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16:00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제3일**

08:00 - 조식후 명태시내관광(합선시)  
10:00 - 명태시내 관광(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12:00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14:00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16:00 - 명태시내 관광(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제4일**

08:00 - 조식후 명태시내관광(합선시)  
10:00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12:00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14:00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16:00 - 명태시내 관광(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제5일**

10:00 - 조식후 인천/명태 도착 후 휴식(합선시)  
12:00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 중국적산법학원(합선시)  
(합선시 경유시 국제여객터미널까지 45인승 시범버스 무료제공)



**4박5일 ₩ 399,000**

**출발일**

4월 30일 ~ 6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화동법학원, 인천항출발), 목요일 (대동법학원, 평택항출발)  
- 포함 사항 : 왕복기차료(다인실), 전일정시사포함, 호텔 2박(2인실), 중국현지관광 및 방생법회, 한중불교교류행사,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중국비자비, 현지가이드비, 기타, 개인비용

중국적산법학원 주지 釋演法

### 국내 방생법회 행사

## 45인승 최신형 관광버스 무료지원

[ 2009년 4월 23일 ~ 7월 31일까지 ]



전국 어디든지 방생법회행사 무료버스 지원가능  
점심(공양), 방생법회 행사비등 1인당 10,000원만 지참  
버스지원합천기업 30분간 경유

**어버이날 특선**

중국크루즈여행 5일  
(5월 7일 출발)  
**399,000원**

**제주도 3사순례행사**

약천사/관음사/천왕사  
(매주 화, 목, 일 출발)  
**259,000원**

# (주)SK투어 ☎1600-4226